이긴자 일대기

: 삼수의 원리로 완성되는 하나님의 역사 〈80회〉

"이 세상 사람들이 너무 불쌍합니다. 힘닿는 데까지 구원해보겠습니다!"

11절 : 구세주가 인류를 구원하는 방식
1) 빛으로 거듭난 구세주가 죄인의 몸을 입고 또 벗다
2) 이 세상에는 학문도 종교도 없었다
3) 빛의 하나님이 왜 육신을 남기시고 환원하셨을까
4) 인류의 죄를 담당하고자 7년 옥고를 치름
5) 세상 왕들을 세우고 치리하는 주님
6) 5대 공약 중에 공산주의를 없애겠다!
7) 우리나라에 불어오는 태풍을 막겠다!
8) 여름장마를 못지게 하고 풍년들게 하겠다!
9) 한반도에서 남북전쟁을 못 일어나게 하겠다!

1) 빛으로 거듭난 구세주가 죄인의 몸을 입고 또 벗다

(지난호에 이어서)

영모님 속에 계셨던 하나님의 신이 둘째아담한테로 옮겨와서 완성이 되자마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으니, 이 세상을 쓸어버리고 다시 시작하자, 내가 이 역사를 해보니 구원 얻을 자가 한 사람도 없어 보이더라. 그러니 너까지 괜히 고생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권고에 둘째아담은 "이 세상 사람들이 너무 불쌍합니다. 힘닿는 데까지 구원해보겠습니다. 또 저에게 부여된 기한이 있지 않습니까?"라고 하나님께 허락을 구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감동한 음성으로 "네 맘이 참 아름답고 선하구나! 그래 너는 나보다 더 낫다. 하기야 모든 전권을 너에게 주었는데 내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사정에 동참해보니 참으로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발붙일 곳이 없다는 것을, 이 은혜 역사를 하면서 더욱 절실히 느끼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긴자가 된 후 단에 한 번만 서고 나면 뼈골 속이 쑤셔오고 오한이 나서 벌벌 떨리고 나중에는 피를 토하는 무서운 고통을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둘째아담은 하루도 거르지 않고 단에 서서 죄인들의 죄를 역겨워하지 않고 오염 받아 사랑으로 씻어내곤 하였습니다. 그런고로 이 세상사람 가운데서 죄인들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이긴자가 이 세상에서 최고로 불쌍한 존재인 것입니다. 평생을 통하여 그 모진 연단을 받은 바 있으며 사선의 고비고비를 넘어 다져진 연단이 있는 고로 이런 험한 일을 하지, 그렇지 않고 인간적인 놀음이라면 이런 일을 하루라도 할 자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둘째아담 이긴자가 죄인, 단 한 명의 죄를 담당하는데도 몇 날 며칠 동안 피를 토하는 해산의 수고와 고통으로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긴자 하나님의 영은 마귀의 영이 자라는 속도보다 무량대수 배의 무한대로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고로 시간이 지날수록 이긴자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죄를 담당할 수 있는 인간의 수효는 자꾸 늘어나기 시작하였고, 인류 구원의 역사를 펼친 지 20년이 경과될 즈음에는 단 1시간 만에 인간의 병마가 들어왔다가 물러가는 거룩한 몸으로 변신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긴자가 사람 몸을 벗고 빛으로 환원되면 인간은 못 보게 되어 지옥이지만 하나님이 된 사람만 보광하신 주님을 보게 되어 구원

그리고 구원의 역사 20년을 행하시고 2000년대에 이르게 되자, 이제 단 30분 만에 인간의 죄 담당이 가능해졌다고 말씀하시더니 이어서 2002년 1월 2일에 이긴자께서 단상에서 말씀하시를, "우주에 꽉 찬 마귀를 일초도 걸리지 않아 그냥 그대로 없애버려요. 그러니까 마귀가 무서워 벌벌 떨어요. 그래서 사실은요 여러분들, 이 사람이 설교하고 그런 시대가 이제 거의거의 끝나가요. 이제 척 바라보기만 하면 마귀가 전부 섬멸돼서 없어지기 때문에 뭐 주절거리고 떠들 필요가 있어? 바라보기만 하면 끝나는 거야."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이제 얼마 후에는 빛으로 환원한 상태에서 설교가 필요 없는, 척 한번 바라보는 것으로 순식간에 죄를 소멸시키는 때가 올 것을 계시한 말씀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둘째 아담이 1931년 음력 6월 28일에 김포에서 태어나서 오십이 다 되어서 밀실에 들어가서 3년간 소변으로 계속해서 피를 쏟고 1980년 10월 15일에 이긴자가 되셨는데, 이와 관련된 이긴자의 설교말씀(2000. 9. 20)을 인용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회오리 모양으로 회전하는 이슬성령(곡선광선)은 영생을 주는 생명과일이요 구세주의 분신이다

"하나님의 신이 사람의 몸을 입을 때는 하나님의 신이 죄인이 되었던 거죠? 죄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죄의 피를 다 쏟아버리니까 바로 하나님으로 도로 환원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사람이... 해와이긴자께서 1980년 10월 15일날 '너는 이제 이긴자가 되었다'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밀실에서 둘째아담 이긴자가 하나님으로 도로 환원되었다가 인류를 구원할 목적으로 다시 인간의 몸을 쓰고 24년간 죄 담당하시다가 또다시 하나님으로 환원될 것을 미리 말씀하신 바 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여러분들이 이 인간의 몸을 쓰고 와서 오늘날 사람 말을 하고 있지만은 실은 때가 되면 다시 환원이 될까? 안 될까? 다시 환원이 되면 인간은 못 봐. 하나님이 된 사람만 봐. 하나님이 되지 않으면 못 봐.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지옥이야. 할 수가 없어. 바로 이런 백보좌 심판자야." [2000년 9월 10일 설교말씀 중에서]

승리제단 성도들은 '이긴자께서 하나님으로 환원된 것'을 일러 「보광(普光)」이라고 공식적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육신을 입은 하나님께서 보광하실 때에, 육신을 남기지 않고 빛의 하나님으로 환원되는 것과 육신 즉 시신을 남기고 빛의 하나님으로 환원되는 것, 이렇게 두 가지의 예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 세상을 뒤집어엎으려고 왔기 때문에, 움직이는 행동이 비밀리에 움직여요

이긴자의 설교말씀(2000.11.07.) 가운데, "이 사람이 언제 어느 때에 말없이 사라질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하면 이 사람은 이 세상을 뒤집어엎으려고 왔기 때문에, 움직이는 행동이 비밀리에 움직여요, 이 사람이.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여러분들이 배신감을 가져가지고 또 '에휴, 속였다'고 이렇게 할까봐, 미리 얘기하는 거야. 아시겠어요? 나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이제 끝까지 달려야 복을 받지, 이제 복 받을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라고 하셨는데, 이는 마치 육신을 남기지 않고 빛의 하나님으로 환원될 것처럼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2000년 11월 14일에 이긴자의 설교말씀을 보면, 앞으로 분신으로 역사할 것을 틀림없이 암시하고 있지만 이긴자가 육신 즉 시신을 남기고 없어지게 될지 아니면 오염된 죄를 다 녹이고 육신마저 남기지 않고 빛의 하나님으로 환원될지에 대해서 정확히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참고로 인용해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몸이 미국도 있어요, 지금. 이 사람의 몸이 영국도 있고 불란스에도 있고 일본도 있고 이 사람의 몸이 한국에만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초창기에는 이 사람의 분신이 움직이는 걸 보여줬죠? (예) 거어~ 저~ 충청도에서 '가자, 가자' 해서 여기까지 끌고 온 사람도 있고, 이제 사방에서 전부 '가자, 가자' 해서 이리 끌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분신으로 움직인다는 게 명확한 사실이죠?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기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지? (.....) 그래 안 그래? (아닙니다) 뭐이 아니야! 분신으로 움직이는데.. 없어도 여기 분신이 있어요, 여기.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없다고 해서 예배도 안 보고 그러면 그건 지옥 가죠? (예) 여기 매일 예배를 봐~ 매일! 매일 예배를 봐야 그래야 피가 맑아지고 죄가 씻어져서 하나님이 되어서 죽지 않게 되어 있어요. 아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그게 그냥 보통 노력을 해가지고 될까? (안 됩니다) 그리~ 그리~ 있는 힘을 다해서 생명을 걸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예)"

이긴자 구세주는 2000년에서 2007년 사이에 보광하실 것을 예고하다

놀라운 사실이지만 구세주의 1차 옥중생활 때, 이긴자 구세주께서는 육신을 남기고 빛의 하나님으로 환원될 것이라고 계시한 바 있었던 것입니다. 이른바 성경 묵시록의 7년 대환란이라고 하는 7년 옥고를 당하고 있던 이긴자 구세주께서는 감방 건너편에 있던 재소자 이동철씨를 집중적으로 전도하셨습니다. 교도소에서 운동장에 나와서 한 시간 동안 운동할 적마다 그 사람에게 진리말씀을 전하자, 어느 날 그 사람이 "주님이 생명과일입니다."라고 먼저 깨닫고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어느 정도 머리가 깬 사람은 가르쳐주지 않아도 알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이동철이라는 사람이, "주님이 생명과일이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귀로 생명과일을 먹는 것이요, 주님을 보는 것이 눈으로 생명과일을 먹는 것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출옥하신 구세주께는 성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세상에는 머리가 뛰어나고 아이큐가 높은 사람은 가르쳐주지 않아도 알게 되어 있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구세주께서는 징역 7년째에 8.15광복특사를 받게 될 것이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1차 옥중 때에 가석방 소식을 듣고 재소자 이동철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번에 석방되어 나가지만 다시 옥중에 들어오게 되어 있다. 그때는 내가 옥사하게 된다."

"주님께서는 영육일체를 논하셨는데.. 그리고 구세주는 영생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천기에 속하는데, 나는 이미 영원한 생명을 이루었어! 내가 희생이 되어야 천국이 되어지고 다 영생 얻게 된다."

과연 구세주의 말씀대로 7년 옥고를 치르고 석방된 지 얼마 안 되어 다시 옥중으로 들어가셨는데, 2차로 옥중으로 들어가신 구세주께서는 보광(普光)하신 것입니다. 이긴자 구세주께서는 2004년 6월 19일에 육신을 남기고 빛의 하나님으로 환원하셨는데, 이렇게 될 것을 가석방 1년 전에도 주님께서 옥중서신을 통해 2000년에서 2007년 사이에 보광(普光)할 것이라고 계시하신 바 있었지만 그 누구도 알아차리지 못하였습니다. 보광을 계시한 옥중서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인용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초초로 하나님의 얼굴을 삭이는(새기는) 것이 잘 안되면 사진으로 숙달하여 습관적으로 삭여야(새겨야) 된다. 그렇게 되어야 생명과일을 먹었다가 되고 마귀가 침범할 수 없게 되면서 승리자가 되는 것이다. 정금례 권사에게 내가 특별히 말한다. 초초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생활을 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내가 축복한 축복물을 일주일 간격으로 교체하여 사용하라. 약솜이나 가제를 종이봉투에 담아서 변호사를 통해서 축복받아 가도록 하라. 만약 정권사가 솜이나 가제를 살 돈이 없으면 제단에서 사주도록 하라. 정권사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하라. 내가 특별히 기억하고 있다고 말하라. 2000년에서 2007년 사이에 나는 빛을 발하게 된다. 전단지를 만들어서 전국에 뿌려라."(다음호에 계속)*

박한수

석가모니는 미륵을 기다렸다 〈1〉

들어가는 말

석가모니의 모든 어록을 기록하여 남긴 것이 불경(佛經)이다. 또한 불경을 모두 모아 놓은 것을 대장경(大藏經)이라고 한다. 대장경이라는 뜻은 클 대(大), 감출 장(藏), 날 경(經)이라고 읽고 뜻은 뭔가 중요한 것을 숨겨 놓았다는 것을 말한다. 우리가 흔히 책을 읽을 때 작가의 뜻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 이 말이다.

불교에서도 믿음을 신앙으로 하지만 불교의 교조인 석가모니가 누구인지 그리고 무엇을 목표로 신앙을 해야 하는지 정확히 마음을 정하고 목표를 향한 믿음을 내어야 처음 마음을 낸 것을 이룰 수 있다. 이것은 기독교와 이슬람교도 마찬가지이다.

특히 종교는 마음을 정직히 갖고 시작해야 하는데, 최근의 사태를 보면 정직과는 거리가 너무 먼 스스로 개인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 욕심을 크게 내어 보이는 것은 다른 이들의 피해는 아랑곳하지 않는 것을 볼 때 참으로 아쉬움과 안타까움만 더할 뿐이다.

예를 들어 시인(詩人)들이 시를 남길 때 시인은 글자를 남기는 것으로 알지만 시인이 왜 이 시를 무슨 생각과 의미로 시를 썼는지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불교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불경의 증일아함경을 보면 제 일권 서품에 아래와 같이 시작이 기록되어 있다.

增壹阿含經卷第一 서품(序品)

自歸能仁第七仙, 演說賢聖無上軌;
자귀능인제칠선, 연설현성무상궤;
永在生死長流河, 世尊今爲度黎庶。
영재생사장류하, 세존금위도려서。

일곱 번째 신선인 능인(能仁)께 귀의하옵고 현성(賢聖)의 위없는 법 연설하리라.

나고 죽는 긴 강에서 헤매고 있을 때 세존께서 뭇 중생들 구제하셨네.

[해석] 위 경구 중 "自歸能仁第七仙,(자귀능인제칠선)"을 살펴보자.

이를 한글로 번역한 것을 보면 "일곱 번째 신선인 능인(能仁)께 귀의하옵고"라고 하는데 이 뜻은 무엇일까?

바로 아래 경구를 보면 알 수 있다.

석가모니가 자기가 일곱 번째 부처라고 하는데 동대 역경원에서 주장은 "석가모니를 가리키는 말이다. 석가모니는 과거 칠불 중에 일곱 번째에 해당하므로 제 칠선(七仙)이라 한다. 고대 인도에서는 불타를 존칭하여 선인(仙人)이라 하였다"라고 하는데 그 번역이 제대로 된 번역일까?

增壹阿含經卷第四十五

爾時,世尊便說斯偈:
이시 세존변설사게:
初佛八萬四, 次佛七萬歲,
초불팔만사, 차불칠만세,
毘舍婆六萬, 拘留壽五萬。
비사파륙만, 구류수오만。
一萬二萬年, 是拘那含壽,
일만이만년, 시구나함수,
迦葉壽二萬, 唯我壽百年。
가엽수이만, 유아수백년。

일곱 번째 신선인 능인(能仁)께 귀의하옵고 현성(賢聖)의 위없는 법 연설하리라.

나고 죽는 긴 강에서 헤매고 있을 때 세존께서 뭇 중생들 구제하셨네.

[해석] 그때 세존께서는 곧 다음 게송을 읊으셨다.

최초의 부처님은 8만 4천 세 그 다음 부처님은 7만 세였네. 비사라바께서는 6만 세였고 구루손여래 수명은 5만 세였네. 1만에 또 2만은 구나함모니여래의 수명이요 가섭여래 수명도 2만 세였는데 오직 나만은 수명이 1백 년이네.

석가모니는 줄곧 미륵만 기다렸다 〈2〉

석가모니일까? 미륵일까?

增壹阿含經卷第一 서품(序品)의 自歸能仁第七仙(자귀능인제칠선)은 과연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

석가모니를 말하는 것일까? 아니면 다른 존재를 말하는 것일까? 사실 필자도 대장경을 구매해서 읽기 전에는 스님들의 거짓말에 속았었다.

왜냐하면 "그들이 세운 종교학교(동국대 불교대학, 중앙승가대학 등)나 스님들이 자칭 타칭 고승들이 그런 거짓말과 행동을 했을까?"라고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을 아는 순간 배신감과 허탈에 빠졌으나 지금은 석가모니가 말한 대로 흘러가서 자업자득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길을 갈 것이라고 생각해 본다.

그럼 증일아함경의 서문 첫째 줄에 명시된 일곱 번째 부처를 말하는데, 나는 석가모니가 아닌 미륵 부처라는 뜻이라는데 확신을 한다.

왜냐하면 능엄경의 설법연대에서 보면 석가모니는 아함부의 증일아함경 보다 한참 뒤에 법화부의 법화경을 설하는데 법화경 방편품을 보면 석가모니가 불경을 방편으로 말하게 된 이유가 보인다.

석가모니가 출가하여 설산에서 6년 고행을 하던 중 온몸이 기력이 탈진하여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사람에게 발견되어 극진한 보살핌과 적극적인 간호 덕분에 기력을 회복하여 '자신의 공부가 어느 정도 진척되었을까?' 하며 점검을 하게 되는데 이른바 "스승 없이 깨우친다"는 독각의 석가모니가 성불했을까? 불국정토는 이뤄졌을까? 등등 여러 생각을 하며 스스로를 점검을 해보니 석가모니 자신은 성불과는 상관없이 미륵이라는 존재가 석가모니의 일생의 목표인 성불과 중생을 구원하는 존재가 동양의 작은 나라에 석가모니 자신이 입멸 후 3000년이나 긴 세월이 흐른 뒤에 온다는 것을 보고 석가모니는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된다.

그렇게 고민을 하는 사이에 21일이라는 시간이 흘러갔다.

그 사이에 석가모니는 죽을까? 아니면 어떻게 할까? 에 깊은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마음공부를 한지라 희생으로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 마음을 고쳐먹는다.

그 순간 마귀가 유혹하길 "당신이 부처니까 방편으로 말하라."라고 석가모니 귀에 속삭인다.

그래서 그 내용이 압축되어 법화경 방편품에 제2에 쓰여있는 것이다.

그런데 석가모니는 잠시 잠시 혼자 있을 때마다 선정에 들어 미륵이 보살행을 하는 것부터 마지막 성불하기까지를 지켜본다.(다음호에 계속)*

明鍾